

1999. 2. 26.

- [6] "FCC Stand on Calls to Internet May Hurt Small Phone Firms," *The Wall Street Journal*, 1999. 2. 26.
- [7] "No Consumer Per-Minute Charges to Access ISPs," *FCC Fact Sheet*, 1999. 2.
- [8] "Separate Press Release from the Office of Commissioner Harold Furchtgott-Roth," *FCC News*, 1999. 2. 25.
- [9] "The F.C.C. Faces Internet Regulation," *The NewYork Times*, 1998. 11. 2.

번호변환서비스(NTS)의 요금 및 접속료에 관한 OFTEL의 제안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김진기
(T. 570-4357, kimjkk@sunnnet.kisdi.re.kr)

1. 개 요

OFTEL은 1999년 3월 10일 BT와 다른 통신사업자들간에 인터넷접속서비스와 같은 특정 식별번호를 가지는 서비스에 대해서 발착신 사업자간에 수익분배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무료통화(free phone)나 지역식별번호가 아닌 서비스식별번호를 가지는 시내 및 장거리(local or national call fee access), 또는 정보서비스(premium rate access)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통칭 『번호변환서비스(Number Translation Services: NTS)』¹⁾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번호변환서비스의 수익에 대한 발착신 사업자간의 분배원칙은 이미 OFTEL이 1996년에 발표하였고, 현재는 그 내용에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96년 분배원칙이 결정될 당시는 현재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기 이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통신서비스들이 출현함에 따라 이러한 부분의 사업

1) Number Translation Service(NTS): the process associated with the routing of a non-geographic number to a network termination point, eg, the number is translated from its non-geographic format into a geographic or mobile number to enable it to be routed to a geographic location or to a mobile phone(OFTEL Glossary)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 의한 수익의 분배에 대해 사업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OFTEL은 기존의 원칙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기존의 원칙은 이용자에게 회선을 제공하는 BT를 포함한 기존 사업자들이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합한 요금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OFTEL이 수정한 번호변환서비스에 대한 발착신 사업자간의 수익분배원칙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2. 번호변환서비스의 수익에 대한 새로운 분배원칙

번호변환서비스는 통화를 위해 착신번호를 지역번호로 전환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통화간의 거리가 아니라 번호에 의해 그 요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로는 무료통화(0800, 0500), 시내전화(0345, 0645, 0845), 장거리전화(0870, 0990, 0541), 고도서비스(premium rate number, 08XX, 09XX) 등이 있다.

1996년 OFTEL은 이러한 번호변환서비스에 대해 수익을 발착신사업자들간에 분배하기 위한 공식을 발표하였다.

번호변환서비스의 수익분배 공식이란, BT나 케이블사업자들과 같은 통화를 발신하는 사업자와 이 발신호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결하는 망사업자들(예를 들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간에 통화요금에 대한 분배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분배에 대한 분쟁은 주로 인터넷으로 착신되는 통화에 대해 나타나고 있다.

1996년에 발표된 번호변환서비스의 수익분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발신측 사업자의 수익: $P - D + C$
- 착신측 사업자의 수익: $D - C$
- P: 발신측 사업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요금
- C: 통화완료를 위한 원가와 일정부분의 이윤
- D: 사업자간 협정요금 혹은 도매요금(무료통화의 경우는 0이고, 시내전화나 장거리전화의 경우는 발신측 사업자의 요금에 협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차감한 순요금)

위의 공식을 기초로 하여 발신측 사업자(BT나 케이블사업자)와 착신측 사업자(인터넷사업자)들간의 수익배분 비율(NTS 비율)을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 현재의 NTS 비율

	평일 표준시간대 (BT:사업자)	평일 할인시간대 (BT:사업자)	주 말 (BT:사업자)
NTS 비율	32:68	47:53	59:41

〈표 1〉에서 나타난 NTS 비율을 보면, 평일 표준시간대는 30:70, 주말은 60:40이다. 그런데, 인터넷이용자들의 경우 주로 평일 할인시간대나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착신측 사업자의 경우 실제적인 수익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착신측 사업자와의 협정요금 설정에 있어서 이용자의 요금에서 7.5%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BT는 이러한 협정요금의 할인율을 보다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OFTEL은 11.7%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BT는 발신측 사업자의 서비스원가에 대한 보상금액(C)의 인상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여 BT는 〈표 2〉와 같은 대안들을 제시했다.

〈표 2〉 BT가 제안한 NTS 비율 대안

	평일 표준시간대 (BT:사업자)	평일 할인시간대 (BT:사업자)	주 말 (BT:사업자)
11.4534%의 요금할인	33:67	49:51	61:39
11.4534%의 요금할인과 C의 25% 인상	39:61	57:43	71:29
11.4534%의 요금할인과 C의 50% 인상	44:56	65:35	81:19

이번 OFTEL의 개입은 약 2년간 BT, Cable & Wirelss(C&W) 및 여러 사업자들간의 조정이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자들이 현재 통화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NTS 공식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OFTEL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사업자들은 각각 보다 많은 수익의 분배를 주장하고 있는데, BT와 케이블사업자들은 통화량의 증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망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위하여 보다 많은 수익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사업자들은 이러한 추가적인 통화량을 받

생시키는 그들의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분배의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수익배분 원칙에 대해서 이번에 OFTEL이 제안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익배분하는 기존의 NTS 공식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음
- 인터넷으로의 접속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그들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상이한 서비스요금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인터넷통화의 요금할인과 라우팅에 대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BT가 제기하고 있는 증분원가를 고려하여 NTS 공식의 몇몇 입력변수들의 가치를 변경해야 함

3. 파급효과

이번 제안에 대해 OFTEL은 크게 2가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BT를 포함한 망사업자들의 설비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의 이용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OFTEL은 이번 제안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통화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의 보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인터넷 이용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고, 이러한 성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OFTEL의 David Edmonds청장은 사업자들간의 분쟁에 있어서 OFTEL의 주요 고려사항은 인터넷의 이용증대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잠재적으로 이용자의 요금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NTS 공식의 원칙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비스제공업체들간의 경쟁을 확대시키고, 이용자들이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밝혔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화에 대한 요금이 다양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또한 제시했다. 즉, 인터넷 웹사이트의 광고나 판매를 통하여 지원되는 서비스는 현재의 시내전화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보다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범위내의 고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BT는 올해말까지 새로운 요금체계를 선보일 예정인데, 이것은 다양한 요금체

계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NTS 번호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의 접속 등 기존 및 신규 서비스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OFTEL은 다양한 서비스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존의 공식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OFTEL은 장기적으로 BT의 요금조정을 위한 검토의 한 부분으로서 사업자들과의 통화수익의 분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현재의 요금에 대한 조정이 끝나는 2001년 8월까지의 현재의 NTS 체제하에서 약 2년반 동안 운영될 것이다.

참고자료:

- [1] OFTEL, "OFTEL Consultation Pap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tail Prices and Interconnection Charges for Number Translation Services," *OFTEL*, 1999. 3.
- [2] OFTEL, "OFTEL Publishes Proposals over Sharing of Revenue of Calls to the Internet," *OFTEL Press Release*, 1999. 3. 10.